에스터하지 궁전 내부 모습

하이든의 선율을 걷는 오스트리아 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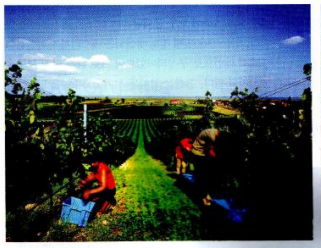
에스터하지

예술과 후원, 그 둘의 관계는 어쩌면 와인과 포도의 종만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이다. 훌륭한 음악가 뒤에는 후원자의 긴밀한 지원이 있었던 것처럼 전 생애를 통하여 지난 400년 이상 형성해 온 에스터하지 가문의 포도 경작은 하이든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나라와 국민에 대한 그들 헌신의 표상으로 남았다. 글 최정원 **자료제공** I&J Partners

ESTERHÁZY

요제프 하이든(Joseph Haydn 1732~1809)

올해 서거 200주년을 맞는 바로크 음악의 대가 요제프 하이든(Joseph Haydn 1732~1809). 오스트리아의 역사적 인물로 그가 거둔 음악적 성공 뒤에는 변함없는 믿음과 후원이 존재했다. 그 후원자는 오스트리아 문화 예술 분야의 대부이기를 자처했던 에스터하지(Esterhazy) 가문. 제국과 교황, 나라와 국민에 대한 충성, 예술과 문화에 대한 헌신으로 400년 이상 그 위상을 내세운 그들은 17세기부터 시작한 포도 경작을 통해 오스트리아 와인의 명작을 품어냈다.



1, 2 에스터하지 궁전이 바라보이는 아이젠쉬타트의 외곽에 최신식의 와이너리가 세워졌으며 이곳은 오스트리아 국내 최고이자 최첨단의 와인 양조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명성을 와인에 담다

에스터하지의 포도 재배는 1758년, 파울 안톤 **에스터하지 2세 부인인 마리아 루나티 비스콘티 백작 부인이 부르고뉴 지역에서 가져온 삐노 누아 품종을 부르겐란트(Burgenland)에 심도록 한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가장 동쪽, 헝가리와 국경이 닿아 있는 부르겐란트는 노이시들러(Neusiedler) 호수를 중심으로 오스트리아의 가장 낮은 지대를 이루고 있어 '비엔나의 바다'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최대 와인 산지이다.** 에스터하지는 바인굿(Weingut ; **와이너리**)을 운영하면서 가문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양조 방식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 발전을 거듭했다. 2005년 가을에는 최신식 설비와 전시장을 **갖춘 새 양조**장을 아이젠쉬타트(Eisenstadt)시의 외곽에 설립하였고, 이곳은 **오스트리아** 국내 최고이자 최첨단의 와인 양조 설비를 갖춘 와이너리로 그 입지를 **굳히게 됐**다. 이 독보적인 와이너리를 갖춘 목적은 포도 경작지의 특성과 그 지역 특유의 아로마와 풍미를 와인 잔에 고스란히 옮기려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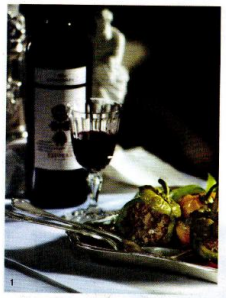
에스터하지 와이너리의 포도들은 노이지들러 호수 구릉지대 중심부에서도 가장 좋은 경작지인, 라이타 산맥과 루스트 구릉지대의 남쪽 비탈에서 자란다. 석회질 토양과 노이지들러 호수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특이한 국지성 기후는 독특한 공생 생태계를 형성하여 아주 각별한 때루아 자체의 독특한 특성을 갖춘 와인을 만들어낸다.

예술을 사랑했던 에스터하지

올해 하이든 서거 200주년을 맞아 방문한 에스터하지 사립재단 칼 베셀리 사무총장은 "에스터하지가 없었다면 하이든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이든은 농지, 산림, 건물 등 각 분야에서 튼튼한 재력을 가진 에스터하지 가문에 3대에 걸쳐 봉직했는데, 와인 애호가였던 그는 이 가문으로부터 와인을 월급으로 받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돈이 아닌 현물로 월급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던 당시, 생활필수품이기도 했던 와인을 받은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은 없으나 에스터하지 가문이 17세기 이후 400년간 와인을 만들어온 것을 감안하면 그 관계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에스터하지 가문은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 영역에서의 성공과 더불어 문화적 영역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후원가이자 예술 수집가로 인정받았던 에스터하지 후작들은 궁정문화의 장려책으로 무엇보다도 음악을 후원했다. 더욱이 18세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지역에서 에스터하지 가의 음악문화는 전성기를 맞이했고, 이에 파울 2세 안톤 에스터하지와 니콜라우스 1세 에스터하지가 크게 공헌했다. 이 시기에 하이든은 에스터하지 가의 궁정악장으로 지내며 후작들의 후원 아래 화려한 음악 생활을 시작했지만, 1790년 니콜라우스 1세의 죽음과 함께 정리했고 또한 에스터하지 가의 음악후원도 점점 축소되어갔다.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와인 생산 역시 중단되었으나, 2005년부터 다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며 국제무대로 그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정체기를 보낸 후라 에스터하지 와인의 양조는 더욱 철저한 과정과 최선의 노력으로 탄생하여 9000여 와인이 참가한 가장 큰 규모의 와인 경영대회인 'AWC Vienna 2009'에서 출품한 와인 5종이 모두 금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현재 약 60만병 정도 생산되는 에스터하지 와인은 4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서로 다른 타깃 그룹을 가지고 있다. 올해는 하이든 서거 200주년을 맞아 '하이든 와인' 또한 생산하여 와인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WR **수입처** I&J Partners **문의** 02-3788-0151



1 에스토라스(Estoras) 와인과 어울리는 속을 채운 파프리카 요리
2 에스터하지 궁전 전경